



나의 주, [하짜르 아삼 지역의] 통치자시여! 그의 (당신의) 종의 말을 들으소서. 당신의 종이 여느때 처럼 안식일 전에 **하짜르 아삼**에서 추수하고, [추수한 것을] 계량하고 [곡간에] 저장하였습니다. 당신의 종이 여느때 처럼 추수한 것을 계량하고 저장할 때, **쇼바**의 아들 **호샤야후**가 당신의 종의 옷을 가져갔습니다. 당신의 종의 옷을 가져갈 때는 여느때 처럼 제 수확물을 [곡간에] 쌓아 둘 때였습니다. 저와 함께 태양 아래 더위에서 저와 함께 일한 나의 모든 형제들이 증언해 줄 것입니다. 제가 진심으로 죄없는 것을 (억울하다는 것을) (저와 함께 일한) 제 형제들이 증언해 줄 것입니다. \*이하 부분은 깨진 다른 작은 토기 조각들과 연관하여 재구성 하였다.\* 통치자께서 진실로 당신의 종의 옷을 돌려 주실줄 확신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종의 옷을 [저에게] 되돌려 줄 때,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리고 저를 당황시키지 않게 하소서.

## 메짜드 하샤브야후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날이면서, 동시에 인간, 그리고 모든 숨쉬는 생명체를 위한 쉼의 날입니다 (출 20:8-10; 23:12). **하나님**은 여섯째 날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 처음 주신 것은 ‘일’이 아니라, ‘**쉼**’, 곧 안식이었습니다 (창 2:1-3). 쉼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지켜야하는 창조

질서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에, 인간은 **하나님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안식한 그 날에 함께 쉬어야 하는 의무가 지워졌다고도 말합니다 (Wenham).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고백의 행위가 곧 안식이라는 거지요. 이 날에는 노예 살

이 하고 있던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던 때를 기억하면서 노예와 가축,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 머무는 나그네 마저도 모두 쉼을 명령하셨습니다 (신 5:12-15). 그러니, **안식일**의 쉼은 단지 ‘일하지 않음’이 아닙니다. 그 깊은 곳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안식일(샤밧, Sabbath, שַׁבָּת)의 기원에 대한 설명으로 (1) 바벨론(Neo Babylon)의 왕들이 매달 일곱번째 날에 바벨론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의식을 했다는 것, 그리고 (2) 바벨론(Neo Babylon)에서 매달 보름달이 뜨는 날, *šapattu*에 제의를 거행하였기에 성경의 안식일이 바벨론의 제의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 그리고 영향을 받은 시기를 바벨론 포로기(기원전 6세기)를 제시한다. 이 주장은 구약과 고대 서아시아의 문헌을 비교하는 학자들 사이에는 널리 알려진 가설이다. 그러나 이 주장에는 몇가지 문제가 있다. 바벨론(Neo Babylon)의 *šapattu*와 성경 *שַׁבָּת*의 문법적인 특징의 문제는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잠시 뒤로 미루어 놓는다손 치더라도, 첫째, 바벨론(Neo Babylon)은 성경처럼 매달 7일을 주기로 제의를 드리거나 쉬지 않았다. 바벨론의 제의력은 7일, 14일, 19일, 21일, 28일 이다. 그리고 이 날은 *šapattu*라 부르지 않았고, UD.ḪUL.GÁL이라고 불렀다(KTU 1.4 VI 22-33). 둘째, 바벨론에서 *šapattu*은 보름달이 뜨는 15일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므로, 바벨론에서 *šapattu*라 불리는 날이 한달에 한번 밖에 없었다.

\* 바벨론의 *šapattu*와 성경 *שַׁבָּת*의 문법적인 특징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R. North, "The Derivation of Sabbath," *Bib* 36[2] (1955): 186-89; T.J. Meek, "The Sabbath in the Old Testament," *JBL* 33 (1914): 203; J.J. Stamm, and M.E. Andrew, *The Ten Commandments in Recent Research*, SBT Second Series 2 (London: SCM Press, 1967), 90; M.F. Rooker, *The Ten Commandments: Ethics for the Twenty-first Century*, NAC Studies in Bible & Theology (Nashville: B&H, 2010), 75.

\* 바벨론의 UD.ḪUL.GÁL과 쉬는 날짜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J. Meinhold, *Sabbat und Woche im Alten Testament*, *FR-LANT* 5 (Göttingen: Vandenhoeck un Ruprecht, 1905), 1; S. Parpola, *Letters from Assyrian Scholars to the Kings Esarhaddon and Assurbanipal*, AOAT 5[1] (Neukirchen-Vluyn: Neukircher Verlag, 1983), 178.

\* 기원전 16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고대 서아시아의 칠일 단위 이야기 전개 방식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강사문, "구약에 나타난 칠일 단위 문학 구조에 대한 연구," *장신논단* 5 (서울: 장신대 출판부, 1989), 7-31.

을 인정함,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에 대한 찬양, 그리고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함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별해 놓은** (성경에서는 이 말을 '거룩한'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날'**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떠나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그리운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의와 관련된 행동을 제외한 일체의 '일'을 모두 금합니다 (민 28:9-10). 심지어 성막과 성전에서조차도 제의와 관련된 행동을 제외한 다른 행동들 (예를 들어서, 성막의 한 귀퉁이에 실이 빠져 튀어나왔다고 그 튀어나온 실을 자르는 행동과 같은 일) 은 엄격하게 금합니다. **안식일**에 나의 삶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곧 **안식일**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믿음의 고백을 저

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은 육체적으로는 '쉽'이나, 그 내면에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지요.

처음에 **이스라엘**에 가서는 이 **안식일**이 매우 신기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지나니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대중교통이나, 어떤 가게도 문을 열지 않으니, 집 밖에 나가서 어디를 갈 방법도 없고, 혹 어찌 어찌해서 시내를 간다고 쳐도, 가서 할 것이 없습니다. 다 문을 닫았거든요. 급하게 뭘 사려고해도 파는 사람이 없으니 살 방법도 없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불편한 나라가 어디있을까요!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샤밧"이라는 장(章)에는 하지말아야 할 일의 목록을 39가지로 규정했습니다 (b.Sabbat 7b). 그렇다고 이 서른 아홉가지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대표적인 목록이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씨 뿌리기, (2) 땅 일구기, (3) 추수하기, (4) 굶어 모으기, (5) 날단 묶기, (6) 타작하기, (7) 까부르기, (8) 곡식 추리기, (9) 빵기, (10) 체질하기, (11) 반죽하기, (12) 빵굽기, (13) 양모를 칼이나 가위로 자르기, (14) 양모 씻기, (15) 양모를 두드려 다듬기, (16) 양모에 염색하기, (17) 양모 짜기, (18) 실을 고리로 만들기, (19) 실을 이어 직조하기, (20) 실을 돌로 나누기, (21) 매듭짓기, (22) 매듭 풀기, (23) 바느질하기, (24) 찢기, (25) 덧을 치기, (26) 도축하기, (27) 동물이나 과일 의 껍질 벗기기, (28) 무두질하기, (29) 피혁 매만지기, (30) 피혁에 표시하기, (31) 피혁 자르기, (32) 두 글자 이상 쓰기, (33) 두 글자 이상 지우기, (34) 건축하기, (35) 건축물 철거하기, (36) 불끄기, (37) 불켜기, (38) 마무리 작업 마치기, (39) 개인의 물건을 공공



이스라엘의 안식일. 주중에 번잡한 도로가 안식일이 되면, 차 없는 거리로 변한다. 유대교인이 아닌 유대인이나 아랍인들은 차량 운행을 하지만, 그 수가 많이 않다.

장소에 옮기거나, 공공장소에서 물건을 1.7미터 이상 옮기기.

이 목록을 보면, (1)부터 (12)까지는 농업 또는 농업 생산물과 관련된 모든 생계 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13)부터 (31)까지는 목축, 그리고 목축의 결과 얻게 되는 양모로 삶의 지탱해주는 일체의 활동을 금지합니다. (32)와 (33)은 공부와 관련된 것들이고요, (34)와 (35)는 건축과 관련된 일입니다. (39)는 상업 활동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이 리스트를 보면, 이윤을 얻거나,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체의 모든 행동들을 모두 금지하는 듯합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 이 이외에도 도시의 경계에서 960m 이상 밖으로 걸어가지 못하게 하거나하는 또 다른 많은 금지 규정들이 있습니다. 시대와 문화가 바뀌면서 현대 **이스라엘**에서는 더 많은 규정들이 덧붙여졌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타거나, 쇼핑을 하거나, 전화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모든 전기 제품의 전원을 켜거나 끄는 행위, 정원을 가꾸거나, 빨래와 설거지를 하는 것 등 말이지요.

그런데 몇 달지나다보니,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

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쉽니다. 주간 동안 번잡했던 도로들에 차가 다니지 않고, 시끌벅적했던 상가들은 모두 문을 닫습니다. 사람들은 오전과 저녁에 회당을 가는 것을 제외하고는 온 가족이 함께 집에서 시간을 보내며 진정한 쉼을 누립니다. 글씨를 쓰는 것도 허락되지 않으니, 아이들 학교에서 숙제도 내주지 않습니다. 쉼과 함께 가족도 만들어지구요. 거리에 나가면, 슈퍼집 사장님, 우리 아이들의 소아과 의사 선생님, 피자 배달하던 친구들과 길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모두가 거리와 공원, 그리고 회당에서 만나 사는 이야기들을 주고 받습니다. 시간에 쫓길 필요도 없습니다. 다들 거리의 의자에 앉아서, 집의 계단에 앉아서, 공원의 잔디에 앉아서 그렇게 **안식일**을 가족과 또 이웃과 더불어 보냅니다. 그러니,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단 하루의 쉼도 없이 '쉼'마저도 '일'이 되어버린 **대한민국**에 적응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 **안식일**에 대해서 150여년 전부터 **고대 서아시아**의 문학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바벨**

론의 영향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안식일** 율법에 대한 **성경** 지식과는 거리가 멀지요? 그런데 학자들은 그리 생각했다는 겁니다. **고대 서아시아**의 유물들이 1900년대 초반에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과 유사한 풍습과 문화들을 그들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물들을 기준으로 **성경**을 설명하는 것이지요. 이런 비교 연구는 매우 유익했습니다. 그러나 이 비교 연구를 하는 학자들 사이에는 몇가지 편견이 있었습니다. (1) **고고학적 유물이 성경의 기록보다 더 가치가 있고**, (2) **앗수르(Neo-Assyria)와 바빌론(Neo-Babylon)의 문화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문화보다 그 가치가 우월하기에**, (3) **성경은 고고학에 근거한 고대 서아시아의 문화와 풍습, 그리고 종교적인 행위들을 그대로 옮겨왔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직선적 역사 이해가 발판이 되어서, **유다** 백성이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7일 주기의 달력을 받아들이고, **안식일** 역시 **바빌론** 포로기가 되어서야 **유대인** 사회에서 확정된 쉼의 날로 자

Line 1 들으소서 나의 주 통치자	ישמע אדני. השר
Line 2 말을 그의 종 당신의 종	את דבר עבדה. עבדכ
Line 3 추수하였습니다 당신의 종 하짜르	קצר. היה. עבדכ. בח
Line 4 아빤에서 추수하였습니다 당신의 종	צר אסם. ויקצר עבדכ
Line 5 계량하였습니다 (또는 끝냈습니다) 그리고 저장하였습니다 <b>여느때 처럼 안식일</b> 전에	ויכל ואסם כיממ. לפני שב
Line 6 계량할 때 당신의 종이 추수한 것을	ת כאשר כנל [ע]בדכ את קצר וא
Line 7 저장할 때 <b>여느때 처럼</b> 왔습니다 호샤야후 아들 쇼바이	ממ כיממ ויבא. הושעיהו בנ שב
Line 8 가져갔습니다 옷을 당신의 종의 계량할 때	. ' ויקח. את בגד עבדכ כאשר כלת
Line 9 제가 추수한 것을 <b>여느때 처럼</b> 가져갔습니다 옷을 당신의 종의	את קצרי זה 'ממ לקח את בגד עבדכ
Line 10 모든 내 형제가 대답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들은 추수하였습니다 나와 함께 더위에	וכל אחי. יענו. לי. הקצרם אתי בחמ.
Line 11 태양 나의 형제가 대답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진실로 나는 무죄합니다	[ה]ש[מש] אחי. יענו. לי. אמנ נקתי. מא
Line 12 ... 나의 옷 ... 통치자에게 ...	[שמ והוא גזל את] בגדי ואמ לא. לשר להש
Line 13 ... 종 ...	[ב את בגד] עב[דכ ותת]נ אלו רח
Line 14 ... 당신의 종...	[ממ והש]בת את [בגד ע]בדכ ולא תדהמנ
Line 15 ... 당황시키지 않게 ...	[...]

**메짜드 하샤브야후의 번역.** 메짜드 하샤브야후의 토기 위에 쓰여진 글씨를 번역하면 위와 같다. 위의 번역은 문장 구조와 관계없이 토기 위에 쓰여진 히브리어를 순서대로 한글로 번역한 것이다. 이 토기의 번역은 두 가지로 나뉘어 진다. 위의 번역과 토기에 기록된 히브리어 해독은 Anson Rainey의 것이다. Naveh는 부사 **כיממ**을 **כינמ**으로 읽었다. 그러나, Anson Rainey의 번역이 조금더 부드럽기 때문에 그의 번역을 따랐다. Line 13과 14에는 갈색으로 **עב** 와 **את** **בת** 가 있다. 이 부분은 메짜드 하샤브야후 토기의 주변에서 여섯 글자가 쓰여진 토기 조각이 발견되었는데, 아마 그 토기 조각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추측으로 재구성된 것이다. 이 부분은 정확하지 않기에 번역 부분에서는 생략하였다.

리 잡았다고 주장했던 거지요. 이 주장이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는 거의 정설처럼 자리 매김 했었습니다. 이 학설을 반박할만한 **성경** 이외의 **고고학적**인 증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매우 기계적으로 **안식일**에 대한 구절이 성경에 나오면, 그 성경 구절은 **바벨론 포로기**, 또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적어도 1960년대까지는요.

1960년에 **메짜드 하샤브야후** (Mezad Hashavyahu)를 **나베** (J. Naveh)가 발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로 7.5-16.5cm, 세로 20cm, 두께는 4-6mm가 되는 토기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그 토기 조각에는 검은색 잉크로 14줄의 **히브리어** 문장이 적혀 있었어

요. **메짜드 하샤브야후**라는 지역은 기원전 7세기때 잠시 사람들이 거주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한 세기 이전에 사람들이 살던 지역인 거지요. **구약** 시대 중, 대략 **요시아** 왕의 시대일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록된 토기 조각의 기록에는 **쇼바이**의 아들 **호샤야후**가 와서는 자기의 옷을 가져갔다고 그 지역의 우두머리 관리에게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호샤야후**가 옷을 강탈해 갈 때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안식일”** 전, 추수하고 곡간에 추수한 것들을 거두어 들일 때라고 분명하게 기록하였습니다. 성경 이 외에 고고학 유물로 **“안식일”**이라는 말이 나온 처음이자, 유일한 포로기 이전 시대의 유물인 것입니다. 당연히 이

유물은 **고고학계**와 **성서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지요. 약 80년 간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제를 완전히 뒤엎어 버리는 놀라운 발견! 이것은 성경을 객관적 역사로 만드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

- ◆ 토기를 그리고 그 해석을 참고한 책들과 이 글을 쓰는데 바탕이 된 책들  
Naveh, Joseph. "A Hebrew Letter from the Seventh Century B.C." *Israel Exploration Journal* 10[3] (1960): 129-139.
- Rainey, Anson F. "Syntax and Rhetorical Analysis in the Hashavyahu Ostrakon." *Journal of the Ancient Near Eastern Society* 27 (2000): 75-79.
- Wenham, Gordon J. *The Book of Leviticus*. New International Biblical Commentary 3. Grand Rapid: William B. Eerdmans, 1979.